전북도민체전 오늘 '팡파르'

4일까지 3일동안 남원서 검도·게이트볼·골프 궁도·배구 등 37개 종목

부대행사로 전라예술제 남원 막걸리 축제도 열어

제59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3년만에 정상 개최된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전북도민체전이 2~4일 3일 간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코로나 엔데믹에 맞춰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체전은 '문화와 미래신업도시 남원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을 슬로건으로 2~4일까지 41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선수 6,874명과 1,126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 그동안 갈고닦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대회는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 궁도,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등 37개 종목에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수영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2일 오후 7시 남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폐회식은 4일 오후 5시 남원춘향골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남원시는 제59회 도민체전을 180만 도민이 화합하는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미기 위해 부대행사로 '제61회 전라예술제'(9월 1일~4일), 남원 '愛' 막걸리 축제(9월 2일~3일)를 개최한다.

또한 행사기간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심야 시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춘향골체육공원 내 부대행사장에는 남원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시 전역에 다채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와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제59회 대회가 끝나고 3주 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2년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강선 회장은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180만 도민이 남원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찬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도민체전이 코로나 이후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체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도민체전의 시작' 제59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9월 1일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자 충효를 기리는 만인의총에서 채화됐다.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직 맡아

"더 좋은 클럽 될 수 있게 노력"

전북현대모터스FC가 지난해부터 어드바이저로 활약해 온 박지성(사진)과 계약을 연장하며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맡겼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초 전북 어드바이저로 취임한 박지성은 성인 팀부터 유소년 팀까지 아우르며 구단 운영 철학 수립과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힘을 보탰다. 향후 박지성은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선수단 구성 총괄을 맡아 선수 평가와 선수단 구성을 직접 한다.

박지성은 성인 팀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사무국 간 가교 역할, 유스 팀 시스템 방향 설정 등 어드바이저 시절보다 폭넓은 업무를 맡는다. 그는 어드바이저 시절과 마찬가지로 비상근직으로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지성 디렉터는 "전북에 머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K리그와 전북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만큼 전북이 더 좋은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69개 스포츠클럽 문체부 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역 내 스포츠 활동 지원 거점 확대" 도내서는 '전북풋볼아카데미' '드림허브 군산에프에스' 등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했고 그 중 69개소가 지정됐다.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이 심사 기준이었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 선수 육성, 기초 종목·비인기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이와 함께 피아이시(PIC)스케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 군산에프에스, 거제주니어에프시(FC)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스포츠클럽 6개소가 선정됐다.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는 스포츠 분야 대표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은퇴 선수의 재사회화 사업, 취약계층 축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전북풋볼아카데미'는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지역 내 유소년 축구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허브 군산에프에스'는 국내 최상위 풋살리그인 에프케이(FK)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 풋살 구단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역량 있는 민간 스포츠 단체들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체육 취약계층, 기초 종목 육성 등을 위한 지역 내 스포츠 활동 지원 거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시스

정읍 개최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 태권도대회' 성료

정읍시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성황리 마무리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1,600여 명의 선수와 1,000여 명의 지도자 및 가족·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600여 명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품새와 겨루기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최 측과 함께 선수와 관계자 측 전원 마스크 착용과 사전방역 조치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대회를 위해 값진 땀방울로 수고해 준 선수 및 관계자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